



«Time for me_Brooch»
2022



«Nap_Brooch»
2022

SINAE BAIK

2017 M.F.A. Metal&Jewelry Design, TED・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Exhibitions

2023 「Young Artist's Shop」 Seoul Arts Center, Seoul
2022 Craft Trend Fair 「The Enamel」 Coex, Seoul
2022 「One and More」 Shinsegae L&B, Cociety, Seoul
2021 「JOYA Barcelona Art Jewellery&Objects」 Disseny Hub Barcelona, Spain
2021 「Romanian Jewelry Week」 Bucharest, Romania

Awards

2019 「Winner・Autor Media Award at Collectiva Joalharia de Autor」 Portugal

ペク・シネ

2017 国民大学大学院 金属・ジュエリーデザイン専攻 修士課程卒業 (ソウル・韓国)

展覧会

2023 「Young Artist's Shop」 芸術の殿堂 (ソウル・韓国)
2022 工芸トレンドフェア 「創作工房ブース・The Enamel」 Coex (ソウル・韓国)
2022 「One and More」 新世界L&B・Society (ソウル・韓国)
2021 「JOYA Barcelona Art Jewelry&Objects」 (ディセンティハーブバルセロナ・スペイン)
2021 「Romanian Jewelry Week」 (ブカレスト・ルーマニア)

受賞

2019 「Winner・Autor Media Award at Collectiva Joalharia de Autor」 (ポルトガル)

www.sinaebaik.com
baiksn0308@naver.com

丸沼芸術の森は1985年、須崎勝茂氏(株式会社丸沼倉庫 代表取締役)により設立され、40名以上のアーティストを輩出してきました。30年以上の支援活動の結果、村上隆氏を始め、多くの作家が現在、国内外で活躍しています。丸沼芸術の森は制作の場に留まらず、アートと社会を結ぶ架け橋となっています。今後は、国際文化交流を通じ、よりグローバルな活躍を各作家が目指せるようにレジデンスや展覧会の企画などを積極的に行い、活動の幅をさらに広げていきます。

Marunuma Art Park was established by Mr. Katsushige Susaki in 1985, and we hosted over 40 artists since then. Many artists, including Takashi Murakami, are active both at home and abroad as a result of our continued support to artists for over 30 years. Marunuma Art Park is not only a space for the conception of art but also acts as a bridge connecting art to society. We aim to further expand by broadening the range of our activities and proactively executing residency programs and exhibition plans. We hope that our artists can become more involved in international exchanges and globally more active.

ペク・シネ 展 / それでここに。
主催：丸沼芸術の森・韓国工芸デザイン文化振興院
後援：駐日韓国文化院

2023 丸沼芸術の森アーティスト・イン・レジデンス No.2



Inner Dream (3)_2023

ペク・シネ 個展
Sinae Baik Solo Exhibition
Marunuma Art Park
2023 Artists-in-residence Program
2023年8月25日(金) - 27日(日)

それで
ここに
いる。



Inner Dream (1)_2023

14回目を迎える丸沼のアーティスト・イン・レジデンス作家は、白（ペク）・シネである。
大学では金属工芸を学び、その表現の柔軟さに可能性を感じていた。しかし、当時の大学では、革新的な工芸表現を求めて、教員も学生も伝統的な技術や材料に対して否定的であったという。そんな空気に、どこか息苦しさも感じていた白は、特別講義で七宝に出会い、その美しさと技術に魅了された。
もちろん、周りでは誰もやっていなかったし、ほぼ独力によってその技術の習得を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さらに、コントロールが困難な技法に白は、その不自由さゆえの仕上がりに心地よい自由さを手に入れられた気がした。

七宝とは、金・銀・銅などの金属に、「釉薬（ゆうやく、うわぐすり）」を用い、高温で焼き上げることで完成するガラス質の膜で、これにより、美しく、艶のある風合いを出すことができる。また、その歴史は大変古く、実は古代エジプトまでその起源を遡らしい。また、仏教で伝えられる7つの宝物（金、銀、瑠璃、玻璃、シャコ、珊瑚、瑪瑙）に匹敵するという名前の由来を持っている。

丸沼のアーティスト・イン・レジデンスに志願した理由は、大きく2つある。
1つ目は「日常から切り離されたい」ということ。周りには知り合いもいないし、移動手段も歩くか自転車だ。そんな丸沼芸術の森は理想的な環境であるという。全てのスピードが韓国とは違い、ゆっくりと過ぎてゆく。また、当たり前なのだが、全ての人が初対面であり、よく質問されるのだそうだ。日常生活でこんなに質問される経験もそうそうない。こんな経験がまた、自分自身を考えるきっかけにもなったという。

そして2つ目は「尊敬する茨城の職人さんに会いたい。」である。学生時代、制作で試行錯誤する中で日本の七宝作家が気になりだした。作家をネットでリサーチをしてゆくうちに作品の材料である釉薬を作る職人に行き着いた。赤の色が特に素晴らしい。日本語が不自由な白は、通訳を雇ってその職人に会いに行った。すでに5、6年前のことである。今回の来日で、再度その職人さんに会いにゆくつもりであるという。

今回、初の個展となるタイトルは「それでここにいる。」である。まさに能動的に立ち位置を手に入れてゆく白にとって、ふさわしいタイトルではないだろうか。本来、七宝に必要な窯の設備が無い環境でのバーナーワークや、異国での日常で手に入れた気付きは、白にとってどのような新しさとなって表現されるのか。そしてどのような風景を見せてくれるのであろうか。

東京造形大学 教授
大橋 博

14번째 마루누마 예술의 숲 국제 아티스트 인 레지던시 참여 작가는 백시내이다.
백시내는 대학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하며, 그 표현이 가진 유연함에 가능성을 느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전통적인 기법 재료 연구보다는 신소재 기법의 혁신적인 공예 표현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한 분위기에 답답함을 느끼게 된 백시내는 특별강의에서 칠보 기법을 접하고 그 아름다움과 기술에 매료된다.
당시 주위에 칠보 작업을 하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스스로 실습하며, 칠보 기술을 습득해야만 했다. 더구나 컨트롤이 어려운 기법을 통해 백시내는 부자유 속에서 완성을 통한 편안한 자유를 손에 넣은 듯한 기분이 든다.

칠보는 금, 은, 동 등 금속에 [유약]을 이용하여 고온에서 구워내어 완성되는 유리질의 막으로, 이 과정을 통해 아름답고 윤기 있는 시각효과를 낼 수 있게 된다. 또한 그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으며, 실제로 고대 이집트까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그리고 불교에서 전해져온 7개의 보물, 금·은·유리(瑠璃)·파리(玻璃)·차거(磤磤)·산호(珊瑚)·마노(瑪瑙)에 필적하는 이름의 유래를 두고 있다.

백시내가 마루누마 레지던시에 지원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일상으로부터 떠나고 싶다]이다. 주변에 지인도 없고, 이동 수단도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다. 그러한 마루누마 예술의 숲은 그녀에게 있어 이상적인 환경이라고 한다. 모든 속도감이 한국과는 달라서 천천히 흘러간다. 또한 당연하게도 모든 사람이 첫 만남이며, 자신에 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고 한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나 질문을 받아본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다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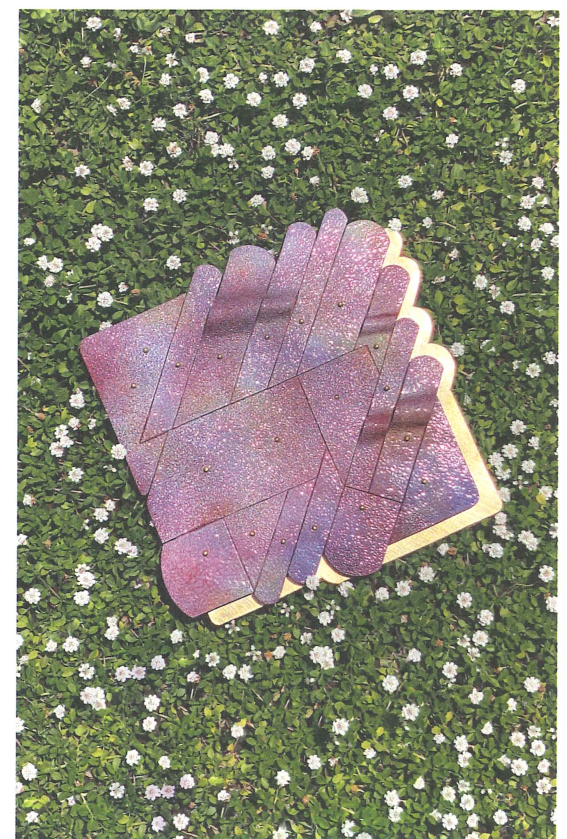
그리고 두 번째는 [존경하는 이바라키현의 장인과 만나고 싶다]이다. 학창 시절 제작에 시행착오를 겪으며 일본의 칠보 작가들이 궁금해졌다. 작가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중, 작품 재료인 유약을 만드는 장인에게 다다른다. 그것은 이미 5~6년 전의 이야기이다. 이번에 일본에 와서 다시 그 장인을 만나러 갈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그녀의 첫 번째 개인전의 타이틀은 [그래서 여기에 있다]이다. 그야말로 능동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손에 넣어가는 백시내에게 있어서 걸맞은 타이틀이 아닐까. 원래 칠보에 필요한 가마 설비가 없는 환경에서 시작된 버너 작업과 이국의 일상에서 얻은 깨달음은 백시내에게 있어서 어떠한 신선함이 되어 표현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풍경을 보여줄 것인가.

동경조형대학교 교수
오하시 히로시



Overlap of time(7)_2023



Overlap of time(5)_2023